

[한인회 소식]

1. 지금 한인회에서는 한인회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뉴멕시코에 이주해 오시는 분들과 기존 교민들을 위한 한인 업소록을 업뎃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연 1회 한인 업소록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한인 업소록 특히 종교부분란을 둘러 보시고 (참고 자료는 광야의 소리 4월호 가나다 순으로 올립니다.) 각 교회의 란에 넣으시고 싶은 내용을 보내 주십시오.

새로운 내용을 보내 주시면 바로 업뎃 하겠습니다.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교회들이 더 잘 알려지고 전도되길 기원합니다.

2. 한인회관이 천장과 부엌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어버이회 모임을 쉬고 있습니다. (연락-한인회장 505-270-1984)

3. 추석맞이-김치축제가 10월 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기대 바랍니다.

[아시안회 소식]

AAANM 아시안회가 지난 7월 18일 후원 모금공연을 가졌습니다.

13개국의 아시안 국가들로 구성된 Asi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AAANM) 아시안회에서는 아시안 센터 Asian center를 마련하려는 계획 하에(예산 600만불) 주정부와 시정부의 후원을 받는 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후원모금 공연을 가졌습니다. 금번 후원모금행사에는 인도 전문무용단들의 자원봉사 공연이 있었습니다.

아시안회 회장은 한인회의 이사이신 김화순님입니다.



<김화순 아시안회 회장/김두남 한인회장과 인도 전문무용단>

[어버이회 소식]

7월 23일은 샌디아 마운틴으로 피크닉, 7월 30일 에버그린 식당(성결교회 최목사님 후원), 8월 6일 Kim's Market에서 새로 시작하는 식당에서 어버이회 회원님들을 대접해 주셔서 어버이회의 즐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7월 16일 정근태 부회장님 따님댁에서의 어버이회 모임>

내 용 Contents

한인회 소식 / 아시안회 소식 / 어버이회 소식 ▷p.1

한국학교 소식 / UNM 한인 학생회 소식 ▷p.2

Congratulations, Albuquerque! ▷p.3

Albuquerque의 9월 행사들 ▷p.3

Three R's: Reduce, Reuse, Recycle ▷p.3

마늘의 효용과 복용방법 ▷p.4

운동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건강 운동법 ▷p.4

Our Tryst With Destiny ▷p.5

자세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p.7

넘어짐의 미학 ▷p.8

교회 소개 : Las cruces 한인 침례교회 ▷p.9

교회 소식 : 뉴멕시코 한인 성결 교회 창립예배 ▷p.9

동유럽 기행문 : 체코의 수도 프라하 ▷p.10

앨버커키, 그 광야속의 훈련 ▷p.13

한국에서 온 편지 ▷p.14

암을 이겨낸 사람들 ▷p.15

소금 이용의 20가지 상식 ▷p.16

80대 20 법칙이란? ▷p.16

담당: 권구자 505-553-1009 kuchachoy@q.com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한국학교 소식]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

안녕하세요. 벌써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어 저희 한국학교 개강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개강 전에 미리 등록을 받습니다. (2009.08.29,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이날 직접 등록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2009.08.31까지 전화(505-991-2160)나 이메일(nm.kls@hotmail.com)로 연락을 바랍니다. 등록기간 후에는 \$20의 지체료가 적용됩니다. 가을학기 개강은 2009.09.11 (금요일반) 과 2009.09.12 (토요일반) 입니다.

Hello. A summer break is already over, and a new school year has begun. We hope you and your family had a lovely break. Following is NM Korean Language School's 2009-2010 school year information. Registration is scheduled on Saturday, 2009.08.29, 10 AM - 12 PM. If you are unable to register in person on 2009.08.29, please call 505-991-2160 or send email to nm.kls@hotmail.com by 2009.08.31. Late registration fee of \$20 will apply after 2009.09.01. The Fall Semester will begin on 2009.09.11 (Friday classes) & 2009.09.12 (Saturday classes).

청소년/성인 한국어 회화반

Youth/Adult Korean Language Classes (Conversational Korean)

생활회화 위주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면서 한글과 어법을 배웁니다.

These classes are taught in English, with emphasis on conversational Korean.

금요일 오후 Fridays 6 PM - 8 PM

가을 학기 Fall Semester: 2009.09.11 - 2009.12.11

봄 학기 Spring Semester: 2010.01.22 - 2010.05.07

수업료 Tuition: \$150 per semester + 교재비 text/workbook fees

아동 한국어반 (만 4살 - 12 학년)

Children's Korean Language Classes (Pre-K to 12th Grade)

한국어로 수업을 하면서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웁니다. 반편성은 한국어 실력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특별 활동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술반, 사진반, 음악반, 무용반, 숙제과외반 등). 등록하실 때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These classes are taught in Korean, with emphasis on reading and writing. The classes will be formed based on students' Korean levels. Saturday sessions also plan to offer extracurricular classes such as arts, music, photography, dance, and/or homework tutoring. The actual offering of extracurricular classes will depend on students' interest and demand. More

details will be provided during registration.

한국어반 Korean Language Classes

토요일 오전 Saturdays, 10 AM - 12 PM (예정 Tentative)

특별활동반 Extracurricular Classes

토요일 오전 Saturdays, 9 AM - 9:50 AM & 12:10 PM - 1 PM (예정 Tentative)

가을 학기 Fall Semester: 2009.09.12 - 2009.12.12

봄 학기 Spring Semester: 2010.01.23 - 2010.05.08

수업료 Tuitions:

한국어반 Korean Classes: \$150 per semester + 교재비 text/workbook fees

특별 활동반 Extracurricular Classes: 미정 TBD

한국학교 교사연수회

Korean School Teachers Workshop

L.A에 있는 미주한국학교 연합회 후원으로 한국학교 교사연수회를 저희 학교에서 준비합니다. 연수회 날짜는 8월 30일 (일요일 오후 4시)입니다. 학부모님들과 학교수업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하오니 곧 연락을 바랍니다. 이번 연수회는 무료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Korean School Association of America is sponsoring a Korean School Teachers Workshop on August 30th (Sunday, 4 PM). We are extending our invitation to this free workshop to the parents and others who are interested. If you would like to attend, please contact us as soon as possible.

한국학교 인터넷 게시판

NMKLS Information on Internet

한국학교에 관한 공지사항은 www.kaanm.com ("Korean School"을 눌러 주세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ew and updated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at www.kaanm.com (click on "Korean School" button).

연락처 POC:

교장 전옥미 Okmi Jun Blemel, MBA, Principal

nm.kls@hotmail.com / 505-991-2160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UNM 한인 학생회 소식]

1. 올해 2009년 가을학기부터 학생회장 김형섭을 주축으로 새로이 개선된 학생회 운영진이 출범하게 됩니다.

2. 학교 동아리 활동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의 테니스, 농구 동아리를 포함하여 새로운 동아리 활동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건의해 주십시오.

현재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들을 위한 회화 친목 동아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의/문의 사항은 click-bijou@hanmail.net

Congratulations, Albuquerque!

최근 들어 Albuquerque가 몇몇 매체를 통해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Top 10 리스트에 수차례 오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Outside Magazine은 Albuquerque를 풍부한 햇빛, 온화한 날씨, 쉽게 강과 산 그리고 트레일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No. 6에 올려놓았습니다. 특히 Albuquerque 경제의 안정성에 큰 점수를 주었습니다. 근자의 주택시장 붕괴에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첨단 산업 분야, 영화 산업,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분야는 더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더욱이 현재 미국의 대도시 중 실업률이 낮은 5번째 도시이며 아직도 여유 부지가 많아 다른 대도시의 실업 인구를 감당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 외에도 3개의 스키장과 Jemez Mountains 에서의 fly-fishing, Class IV의 whitewater가 당일 여행이 가능한 거리 내에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직 종사자들은 상당히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생활비가 적게 들어 돈을 절약하기에도 좋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잡지인 Kiplinger's Personal Finance 는 2009년 7월호에서 Albuquerque를 2009년 Best Cities No. 2에 올려놓았습니다. Albuquerque는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분야인 태양열 발전을 위한 solar-panel 을 만드는 Schott North America의 main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현재 영화 산업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No Country for Old Men* 이란 영화도 여기서 만들어 졌으며 터미네이터 시리즈 중 최신작 *Terminator Salvation*도 Albuquerque 스튜디오 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8년전 100명 정도에서 시작한 영화 산업은 현재 3000여명이 이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도 역시 지난 6월 Albuquerque를 살기 좋은 곳 Top 10 중 하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이유로 Albuquerque의 맑은 하늘과 트레일, 안정적인 경제 상황 등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 Albuquerque가 미국에서도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사실에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연을 즐기며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료 출처: Albuquerque 시의 official website)

Albuquerque의 9월 행사들

Albuquerque시에서 9월에 있을 행사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추억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제 10회 New Mexico 마라톤 대회 : 8월 31일

(Half 마라톤과 5K 마라톤도 함께 열립니다. 평소 시 열심히 뛰며 운동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은 8월 29일까지입니다.)

2. New Mexico State Fair : State Fair Ground에서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3. New Mexico Wine Festival : Bernalillo에서 9월 5, 6, 7일(Labor Day Weekend)
4. Maize Maze : Rio Grande Community Farm에서 8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6피트 이상 자란 옥수수 밭에 미로를 만들어서 길을 찾아 나오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초등학교 정도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입장료가 있습니다.)

Three R's: Reduce, Reuse, Recycle

여러분은 얼마나 쓰레기 재활용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재활용은 자원을 보호하고 공기, 토양, 지하수를 보호합니다. Albuquerque에서는 하루에 1,800톤 이상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줄 땅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 그리고 그 아들, 딸의 아들, 딸들이 살아가야 할 소중한 땅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환경 보호를 위해 애써야 하겠습니다. 일단, 3가지 R-Reduce (쓰레기 줄이기), Reuse (재사용), Recycle (재활용)- 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 요즘 많은 분들이 장바구니용 가방을 가게에 직접 가져가서 물건을 담아 옴으로써 비닐 백 사용을 줄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장을 볼 때는 꼭 잊지 말고 가방을 챙겨가서 불필요한 비닐 백 사용을 줄여 봅니다.
- ▷ 종이는 꼭 양면을 사용합니다.
- ▷ 세제는 가능한 적게 쓰고, 친환경 상품을 사용합니다.
- ▷ 음식물 찌꺼기는 배수구에 버리지 말고 따로 모아 쓰레기로 버립니다.
- ▷ 폐식용유는 헌 신문지나 형철 등으로 잘 닦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 ▷ 의류, 가구, 가정용품은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거나 garage sale 등으로 팝니다.
- ▷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봅니다.
- ▷ 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 합니다. 종이, 플라스틱, 알루미늄 캔 등을 따로 모아서 버립니다. 유리병은 수거해 가지 않으니 시내 여러 곳에 있는 drop off sites를 이용하면 됩니다.

마늘의 효용과 복용방법

Dr. James Park

단군신화에서 웅녀(곰)를 사람으로 변신하게 하는 신비의 식물에 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마늘과 쑥을 먹고 여인이 된 곰과 하늘의 아들인 환웅 사이에서 태어난 시조 단군에 관한 신화는 마늘의 신비성과 함께 기초 약용식물로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단군신화에 등장할 만큼 우리 민족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친숙한 관계임을 증명해 준다. 마늘의 독특한 냄새는 유화알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여기에는 강한 살균력이 있어서 무좀 등 세균성 질환이나 위장을 비롯한 내부 장기의 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 특히 생마늘을 직접 먹을 경우 소화기 계통의 염증완화 및 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또한 마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 질은 호르몬 분비를 활발히 해 정자와 난자의 발육을 돕고 수태율을 높이며 정력 증강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마늘 속에 들어 있는 알리신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돕고 이용률도 높여 준다. 마늘은 대표 적인 항산화제인 비타민 E보다 무려 2천 배나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혈액과 세포를 건강하게 지키며, 피 속의 콜레스테롤을 줄여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한다. 또한 마늘 속의 칼륨이 피 속의 나트륨을 없애 혈압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마늘은 혈당치 개선에 효과가 있다. 특히 마늘의 알리신이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며, 비타민 C와 함께 피 속의 포도당이 세포로 스며들게 돕는 작용을 한다. 또한 마늘에는 유기성 게르마늄과 셀레늄이 들어 있어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국립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립 암연구소와 중국 상하이 암연구소가 상하이의 전립선암 환자 2백30명과 비 암환자 4백71명을 조사한 결과 마늘, 파, 양파를 즐겨 먹는 사람의 전립 선암 발생률이 50~70%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도 마늘이 위암과 결장암의 발생률을 각각 50%와 30%로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때문에 마늘은 가장 효과적인 항암 식품으로 꼽히고 있는데, 생마늘 혹은 익힌 마늘을 하루에 한 쪽 정도만 꾸준히 먹어도 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산 마늘에 항암성분이 타국산에 비해 56배나 많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마늘을 유용하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1. 위염, 위궤양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 마늘 한 두 쪽을 떼어내어 앞이 나오는 부분을 잘라내고 강판에 곱게 갈아 차가운 생수에 타서 마시거나, 쥬스를 만들 때 같이 넣고 갈아 하루 세 번 식사 후에 정기적으로 복용하면 된다.

2. 어드름 또는 습진 치료를 위해서는 통마늘 4-5통을 강판에 갈아서 즙을 만든 다음 물 5컵을 붓고 끓인다. 끓인 마늘물이 물 3컵 정도로 졸아들면 불에서 내린 다음 따뜻할 정도로 식혀 작은 수건이나 가제에 마늘 물을 적셔서 얼굴이나 목 부위에 습포하여 마늘 성분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한다. 10분 정도 습포한 다음 깨끗한 물로 씻는다.
3. 간장 해독이나 피로 회복에 마늘을 구워 복용하여도 된다. 간혹 구우면 영양이 파괴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마늘은 구움으로써 새로운 효능을 가지게 된다. 죽염의 고안자인 [新約]의 저자 인산 김일훈 선생은 마늘을 구울 때 사람에게 이로운 세 가지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 첫째는 피를 만드는 성분, 둘째는 뼈를 만드는 성분, 셋째는 살을 만드는 성분이 되어 사람에게 매우 이로운 보약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실지 구운 마늘가루로 각종 암과 위장병을 수도 없이 치유해 주어 유명하기도 하다. 또한 옛 의서에서는 마늘을 구워 먹으면 하체 즉, 남자나 여자의 성기능과 신장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효력이 나타난다고 했다.

'3월에는 양파를 먹고, 5월에는 마늘을 먹어라. 그러면 그 해의 나머지 기간 동안 의사들이 편안히 놀 수 있다.'란 옛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마늘을 식품으로써 또는 약재로써 잘 활용하여 다가오는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한방 통증 및 재활센터

(505) 514-2900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새로 이전한 장소)

저희 클리닉에서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동시에 개설하여,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유효한 치료방법으로 교민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려합니다.

- * 가정의학과 : Gilberto Alvarado, CNP
- * 한방치료 및 물리치료과 : 한의사 Dr. James Park
최첨단 한방 진단 의료를 갖추어 정확한 진단을 하며, 최첨단 물리치료기와 침을 통하여 치료를 동시에 받으므로 치료효과를 높이고, 최신 한약 추출기로 약을 달여 진공 포장하여 교민 여러분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 * 각종 보험 및 연방정부의 메디케어(medicare)와 주정부 메디케이드(medicaid)를 취급하며, 한방치료를 관한 건강상담은 예약을 통하여 무료로 하여 드립니다.

운동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건강 운동법

1. 숨쉬기 운동

숨쉬기 운동이라고 맞보지 마시고, 충분한 집중력으로 '숨쉬기 운동'을 해보세요.

- 한 손은 배꼽에, 한손을 등 뒤에 댄다.
- 숨을 들이쉴 때 배를 나오게 하고

- 숨을 내 쉴 때 복부를 들어가게 하면서 양손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다.
 ♣이른바 '복식호흡'이라 불리는 이 운동으로 체내 장기가 자극을 받고 폐활량이 증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양손 하늘로 뻗기 운동

장시간 컴퓨터 작업이나 운전으로 스트레스 받은 몸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 차려 자세로 똑바로 선다
 - 숨을 들이쉬면서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팔을 위로 뻗는다.
 - 숨을 내 쉬면서 허리의 움직임이 느껴질 때까지 몸을 쭉 편다.
 - 숨을 들이쉬며 맨 처음 자세로 돌아간다.
- ♣구부러져 있던 몸을 이완시키고 상체의 근육과 힘줄 인대 등의 탄력을 좋아지게 합니다.

3. 어깨 스트레칭

앞으로 숙이기 쉬운 어깨를 펴주고 껍을 확장 시켜 줍니다.

- 손을 등 뒤에 놓고 엄지손가락을 엇갈리게 낀다.
 -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면서 양팔을 등 뒤로 밀어 올린다.
 - 6초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한 다음 숨을 내쉴다.
 - 맨 처음 자세로 돌아와서 숨을 들이쉴다.
 -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양쪽 손끝이 바닥에 닿도록 하면서 숨을 내쉬고 자세를 6초 동안 유지한다.
 - 맨 처음 자세로 돌아와서 숨을 들이쉴다.
- ♣단전에 모은 에너지를 몸에 흡수시켜주고 바른 몸 자세에 도움이 됩니다.

4. 복부 마사지

-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을 올린다.
 - 배를 누르면서 시계 방향으로 문지른다.
- ♣편한 자세에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면 음식이 이동하는 대장의 통로를 따라가며 자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5. 발목 마사지

- 발목 안쪽을 볼 수 있도록 발을 다른 다리 위에 얹는다.
 - 아킬레스건과 뼈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을 찾는다
 - 찾은 곳을 손가락으로 5초씩 자극한다.
- ♣이 부분은 허리 통증과 여성의 경우 생리통을 줄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 날리며

신영길

손에 아무 것도 천 것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때와
 연실을 잡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때는
 손맛이 사뭇 다르다
 사는 맛도 그런 이치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꿈과 내가 연결되어 서로 얘기하는 것,
 연 날리다보면
 꿈꾸는 것이 그런 것임을 알게 된다
 메인 데만 없으면 자유로이 날 수 있으리라,
 맘껏 꿈꿀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곤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것을,
 묶여 있어야만 비로소 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끈도 없고 당기는 사람조차 없으면
 그것이 연이던가? 종이조각이지!
 내 삶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불평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바람이 없으면 연 날릴 수 있겠는가
 고난의 때가 아니면 꿈 꾸겠는가

*바람이 없으면 연 날릴 수 있겠는가
 고난의 때가 아니면 꿈 꾸겠는가...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나는 저 연도 실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산다.
 우주공간을 자유롭게 유평하는 인공위성도
 항공 우주국 관제탑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하늘의 연이 자유롭게 춤추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실에 묶여 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유가 좋다고 부리치고 떠난들 예측되지 않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요, 버림이라는 사실을...

묶여 있어야만 비로소 날 수 있음을 나는
 연 날리는 소년을 통해 다시 깨닫는다.
 연 날리는 소년의 수고에 감사 하면서...

[The Korea Times]

Our Tryst With Destiny

Provided by Frank Praytor

By Hannah Kim This past Aug. 15 called for celebration to one-sixth of the world's population as it marked the 62nd anniversary of India's day, appointed by destiny, in which she stood again, "after long slumber and struggle; awake, vital, free and independent." India's tryst with destiny finally arrived exactly two years after Korea gained its freedom from colonial rule in 1945. Six decades later, both of these independent nations rank in the top 15 of the world's economy, and Indian and

Korean-Americans are among the most financially successful in the United States. Nearly 2 billion Indians spanning the globe had every reason to celebrate as the country boasts "the world's largest democracy," and is respected for independence "pledged to the principles of fairness, dignity, peace, and democracy." These exact words are

IN HONOR OF DR. PARK, SEH-JIK, PATRIOT

Louis T Dechert

THIS WE' LL DEFEND!

contained in the resolution that passed (S. RES. 102) in the 105th United States Congress, designating Aug. 15, 1997, as Indian Independence Day: A National Day of Celebration of Indian and American Democracy during its 50th Anniversary. Having yearned and struggled long and hard for their own freedom, Koreans rightfully deserved to rejoice on Aug. 15 in worthy recognition that the "independence of Korea was not only significant to Koreans, but also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all countries in East Asia in the fight for democracy and civil liberties." This is precisely the language used in a resolution (H. CON. RES. 227) submitted by Rep. Joseph Crowley in 2005 during the 109th United States Congress, though I wonder how many knew such an effort was made in "Commemo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nd recognizing Korean National Liberation Day." So I cringed in guilt when I read the part in the resolution where it matter-of-factly states: "Whereas Korean National Liberation Day serves as a reminder and heightened awareness among the younger generations of Koreans for the struggle for independence through the noble deeds of their forefathers." How many of us young people, especially living in America, can actually fathom the full depth of Korean independence, and how we can express our appreciation are questions I began to genuinely ponder while reading the resolution. Fortunately I found some relief and hope toward the end when it encouraged Americans to "reflect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remember the lives lost during the Korean conflict, once termed the 'Forgotten War.'" Gratitude comes naturally to me because I know so many Korean War veterans who shed blood to preserve South Korea's independence, but nonetheless say, as did Congressman Charles

Rangel, who conveyed congratulatory remarks this past Independence Day weekend in New York. "It gives me great pride to see how the nation has flourished into a country of democratic and free people." Indeed, Korea's economic and cultural prosperity has come at a great cost, including the ultimate sacrifice of a myriad of lives. And Korean-Americans now thrive in the land of the free and participate in the world's best democracy. In fact, it is further humbling to hear Ed Buckman, who served in Korea from 1950-1952,

tell me: "All Korean veterans are so proud of what your homeland has achieved with their freedom. We are equally proud of our new citizens from Korea; they have raised the bar for all others to follow as new Americans." However, as we continue to celebrate our current success, we would be remiss not to think about the 25 million people who share the same independence yet do not enjoy the freedom. Regrettably, the two Koreas still remain at war. The status quo on the peninsula brings much suffering not only to people in North Korea, but also to many in the South and Koreans everywhere. In this regard, I hope we can take a moment to reflect upon these breathtaking words by India's first Prime Minister, Pandit Jawaharlal Nehru, at the stroke of midnight on Aug. 15, 1947, in proclamation of their independence: "Before the birth of freedom we have endured all the pains of labor, and our hearts are heavy with the memory of this sorrow. Some of those pains continue even now. Nevertheless, the past is over and it is the future that beckons to us now. That future is not one of ease or resting but of incessant striving so that we may fulfill the pledges we have so often taken and the one we shall take today." I sincerely believe the past is key to understanding the present and unlocking the problems of the future. As Nehru uttered in his renowned "Tryst with Destiny" speech, "... as long as there are tears and suffering, so long our work will not be over." On Aug. 18, 1945, on the "Day of Gwangbok," Korea reclaimed its light. So that the sacrifices of the freedom fighters and the Korean War veterans were not made in vain, let us not forget our history, nor "allow that torch of freedom to be blown out, however high the wind or stormy the tempest." Hannah Kim is a 2009 Master's graduate at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olitical Management, specializing in Legislative Affairs. She spearheaded the passage of the "Korean War Veterans Recognition Act, U.S. Public Law 111-41," which was signed by President Obama on July 27, 2009, 56 years to the day after the Korean War Armistice was signed in 1953. She can be reached at hkim@remember727.org

기다리고 기다리던 교육관 증축

알버커키 감리교회 김 준호 장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데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4:10)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증축하기로 결정하고 건축위원회도 조직하고 첫 모임을 가졌던 것이 2006년 5월 26일 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3개월 전의 일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 긴 시간들이었다. 처음에는 신이 나서 건축위원회도 자주 모이고 성도님들에게 상황 설명도 하고 건축위원회 보고서도 만들어 나누어 주고 하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간 것이다. 처음 교회를 건축하면서 무던히도 고생하셨던 이경화 장로님이 그 짐을 나에게 떠 맡기는 듯한(?) 인상을 받았지만, 어떻게 하라! 그래도 해박야지 하고 말은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만만치 않은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물론 이 장로님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는 중이다. 가끔가다가 마음에 거슬리는 것도 없지 않지만, 대체로 유용한 조언들이어서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출(Loan)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안타깝고 지루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열이 치밀어 오른다. 누구

말대로 된다, 된다, 하면서 질질 끌며, 세월아 날 잡아라 하는 식의 무관심한 처리 방법,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이런 식의 자세로 대하는 Bank of America의 Loan officer의 태도는 정말 참기 어려웠다. 그러면서 2년 넘게 승강이를 하던 중 BOA로부터 NO! 라는 최후통첩을 받았을 때,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안될 것 같았으면, 1년 전에 말해 주었어야지, 나의 운전 면허증 번호, Social Security 번호 등, 모두 달라면서 될 것처럼 말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꾸어 내 뒤통수를 쳤던 것이다. 나는 꼭 믿는 도끼에 발을 찍힌 기분이었다. 말할 수 없이 당황한 나는 부랴부랴 우리 연회의 Methodist Foundation에 약 200만 불의 자금이 있으니까 신청해 보라는 Jim Hawk감리사의 조언을 토대로 또 대출 신청 작업을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연회는 우리 연합 감리교회의 기관이고 그래도 집안의 어른(?)들이 계시는 곳이니까 든든히 믿고 기대 하며 여러 가지 서류들을 작성하였다. 요구하는 서류들은 역시 만만치 않았다. 몇 주 후에는 지난 3년 동안의 Bank balance statements, 또 3년 동안의 cash flow sheet 등을 제출하고 대출의 규모, 그리고 상환계획을 내달라고 했다. 그 후에 지불 능력이 좋다는 판단 서류가 email로 도착 되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을 달래며 은근히 Final answer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몇 달이 또 지났다. 나의 마음은 또 불안해지기 시작 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연회 사무실에 불 일이 있다고 하셔서, 다시한번 독촉 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했더니 가서 상황을 check 하셨다. 나는 내 나름대로 우리 감리사님도 Loan decision making committee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좀 힘을 써 달라고 간청 하였다. 감리사의 대답은 "그들은 그들의 방법이 있으니까, 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그 후 우리 목사님께서 수소문한 결과는 20만 불은 너무 많고, 10만 불 정도는 Loan이 가능 할 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때는 이미 Wells Fargo Bank에 Loan 신청을 하고 있던 때라 이자도 똑 같게 연회에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결과는 BOA와 같이 Loan 신청이 거절 된 것이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건축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께 구두로만 해 주었던 것이다. 나는 또 다시 쓰디쓴 맛을 경험해야만 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연합감리교회에 가입 했을 당시 감리사 이었던 Elkins박사님이 지금 재직하셨다면, 이렇게 의붓자식 취급을 안 받았을 텐데 하고, 참 아쉬운 생각이 들었었다.

그런데 독자 여러분 너무 상심 마세요. 우리 속담에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지요? Wells Fargo Bank에서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는 Christian 들이 있어서 아주 신속하게, 성실하게 Loan을 허락 받았습니다. Hallelujah!!! 그 다음 단계는 Bernalillo County에 건축허가를 받는 것 이었다. PJ

Development (우리 건축업자)는 건축허가를 받는 데 약 4주 걸릴 것이라고 해서 그러면 Loan Mature Date 가 금년 8월 1일 까지니까 5월 초에 착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그들 말로는 3개월이면 완공 할 수 있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 허가를 받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우선 Neighborhood Association에서 다음 것들을 1년 내에 실천해 달라고 요구 하였다.

1. Parking: The church intends to pave the east parking lot to minimize dust and/or tracking mud onto Tyler road. Additionally, the church will eliminate any parking in Tyler road
2. Grading: The church will re-grade all non-conforming area
3. Landscaping: The church will reinstate the landscaping to conform to the original approved landscaping plan. The church will repair area of ground cover that has eroded away to expose weed screen irrigation piping. The church improves elimination of weeds in all areas of landscape.
4. Fencing/Trespassing: The church will repair all existing perimeter fencing. The church will investigate incorporation of "NO TRESPASSING" sign on the property.

또 한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 중의 하나는 Building code가 개정되어 우리처럼 교육관을 증축 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Springkler system과 Fire alarm system을 꼭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비용이 5만 5천불이다. 우리 목사님은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성격이어서 Bernalillo County Zoning Department를 수차례 드나들면서 마지막 허가서를 손수 가져 오셨다. 그것이 금년 6월 19일인가 보다.

찬송가 가사에 "태산을 넘어 험 골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란 가사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태산을 넘어 왔는가!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 주셨다고 굳게 믿는 바이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누군가가 우리를 격려하고, 고통을 나누는 분들이 있었다. 참 고맙고 또 고마웠다. 건축위원회라는 배가 압초에 부딪혀서 무서운 파도와 싸워야 했고, 남에게 말 할 수 없는 좌절감, 배신감 같은 것도 있어서 더욱 참기가 어려웠다. 함부로 내 뱉는 말이 나에게는 비수가 되어 나의 가슴에 꽂힌 것이다. 나는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항의 했다. 왜 이런 책임을 나에게 주어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느냐고! 그때부터 내가 싫어하는 악몽이 또 다시 나타나기 시작되었다. 꿈의 내용은 항상 시험 보러 가는 데 시험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시험지를 앞에 놓고 공공거리고 안절부절 하는 것이다. 이 꿈은 건축 위원장 직을 맡은 후에 일어 난 일인데, 내가 CVI Laser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끊이지 않고 허구한

밤에 꾸었던 꿈이다. 내가 CVI를 25년 근무 했는데, 과장한다면 약 20년간 꾸었을 것이다. 나의 꿈은 옛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해몽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내 꿈의 원인은 수도 없이 밀려들어오는 customer들의 불평불만, 직원들 간의 마찰과 갈등,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등의 문제 때문이었다.

퇴직한 후에는 이 꿈은 말끔히 없어져서 참으로 편안한 나날을 보냈는데, 건축 위원장 직을 맡으면서 다시 시작 된 것이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며 아내는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나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에레미야 29:13)"는 말씀을 경험 하였다. 참말로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제부터는 꿈을 개척지도 않을 것이고 겁내지도 않고 담대하게 일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 장로님도 건축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더 굳은 신앙심을 가지게 되었을 줄 안다.

우리의 목표액은 30만불 (20만불 loan, 10만불 모금액)로 책정했는데 사실 모금액이 15만 불이 만들어 진 것이다! 그 중에서 5만불로 우리 목사관 loan전액을 지불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종 건축비를 30만불로 조정해 보았으나 30만 5천불로 낙착되었다. 모금에 관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정성어린 헌금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 ABQ내에서 또는 외지에서 헌금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타지에서 헌금을 보내주셨다. 한 분 더 언급한다면 우리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용치 목사님이시다. 그 분은 오래 전에 우리들의 미약하고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잘 지도해주셨고 든든하게, 튼튼하게 다져준 분이고 또 둘째 아들 영광군의 참변으로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보상금으로 받았던 전액을 교회건축에 회사해 주셨다. 영광군이 우리교회에 있었을 때는 초등학생이었고, 명랑하고 준수하게 생긴 학생이었다. 우리들 중에 그 학생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여럿 있을 줄 안다.

애석하게도 이번 건축 계획에서 동쪽 새 주차장의 포장공사는 부득이 빠지 않을 수 없었다. 이유는 자금 부족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벽돌헌금(PEANUT offering)을 내년 9월까지 계속했으면 한다. 티 끝 모아 태산이라지 않나!!

여러분들 제가 너무 돈 돈 해서 미안합니다. 용서 하세요. 책임을 맡고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베고픈 원숭이에게는 바나나만 보인다 네요. 혹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분이 나타나서 우리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 한 몫 해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기도 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깁니다. 수고의 땀은 흐르지만 기쁨도 샘물처럼 흐릅니다.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개} Las cruces 한인 침례교회

1991년 7월 12일에 창립된 라스 크루시스 한인 침례교회는 현재 Church of Christ 미국 교회의 별관에서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예배 (동시통역),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기도회로, 오전 5시 30분에 새벽기도(월~금)로 모이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 12일에 18주년 창립 기념예배를 엘파소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병균 목사님의 설교와 본교회 10년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김현구 목사님의 축도로 드러졌다.

지난4월 교회를 섬기시던 김용식 목사님이 사역지를 타주 로 옮기신 후 8월 1일부터 임시 담임목회자로 엘파소 제일 침례 교회의 박종인 전도사님이 섬기고 계시며 그 어느 때보다 성도들이 단합하여 담임 목사님 초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스 크루시스 한인 침례교회의 설립 목적은 선교에 있다. 뉴멕시코 주립대학 학원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고 그것을 기점으로 작은 한인교회지만 멕시코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근 13년 전부터 시작된 멕시코 선교는 전교인이 1년에 4번 선교활동을 나가서 학용품, 음식, 찬송, 성경을 보급했고 그렇게 시작된 선교의 결실로 현지인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하에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현구 목사님께서 코맥(Ko-Mex) 신학대학을 설립하시게 되고 현재까지도 엘파소와 달라스의 많은 교회들이 Juarez와 Las talomas 지역 선교사역에 동참하기에 이르렀다.

선교사 후원으로는 아프리카 이원철 선교사 후원(매월200불), Church of Christ 미국교회를 통한 선교(매월200불)과 중국선교를 하고 있다.



올 한해의 표어는 **사랑으로 성장 하는 교회**, 교회의 비전은 3년 안에 자립하여 하나님께 선교로 드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주소: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교회에 관한 문의 사항: 임시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박종인 전도사(915-276-2773)

주님의 사랑

라스 크루시스 한인 침례교회 성도 에스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부을 수 있는 사랑

무한정 받을 수 있는 사랑

폭풍이 몰아칠 땐 더 온유한 사랑을

시리게 추운 겨울엔

더 따뜻한 사랑을

찢기는 아픔이 있을 땐

더 포근한 사랑을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는 변함없는 그 사랑

찢기우고 할퀴어도 멈추지 않는 그 사랑

나 그런 우리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교회 소식} 뉴멕시코 한인 성결 교회 창립예배



<1.창립예배에서 특송하는 뉴멕시코주 목회자 협의 회원,

2.최치규 담임목사 3.회중들>

뉴멕시코 한인 성결 교회가 그동안 한인회관에서 주일 11시에 주일예배와 새벽5시30분에 새벽 예배를 드리며 준비해 오다가 2009년 7월 19일 오후 6시 뉴멕시코주 한인회관에서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본 교회는 기독교 미주 성결교회 총회의 LA동지방회에 속한 교회로 네바다주와 아리조나주 그리고 뉴멕시코주 3개 주로 구성되는 광범한 감찰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담임:최치규 목사(408-334-7227)

동유럽 기행문

제3일 : 체코의 수도 프라하

이경화 장로

동유럽여행 3일째 날, 우리의 일행은 독일의 드레스덴을 떠나 체코 공화국의 수도인 프라하(Praha:영어로 는 Prague)를 향하여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갔다. 약 30 분쯤 달린 듯 했는데, 벌써 체코국경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잘 가라는 Sign이나, 어서 오라는 Sign도 없이 국경을 통과한다. 국경지대에는 아무런 건물도 없고 단지 도로 표시판의 언어가 바뀌어진 것 밖에 없었다. 미국의 주 경계를 지나는 것 보다 더 싱거운 통과였다. 체코도 2007년부터 유럽연합(EU:European Union)의 회원국이 되었으므로 출입국 관리가 없어진 것이다. 2007년에 EU, 유럽연합 가입국은 27개국으로 늘어났는데 EU의 목적은 여러 유럽국가가 경제적으로 한 개의 시장을 형성해서 모든 자본, 노동력, 물자가 자유로이 왕래하게 하여 유럽 산업 경제의 경쟁력을 유리한 지위로 올리자는 것이다. EU 국기는 푸른 바탕에 금빛 별 12개를 원형으로 배치했다. 열두 별의 숫자는 회원국수에 관련된 게 아니고 열둘이란 숫자가 완전함(Completeness)과 단합(Unity)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택했다고 한다.

고속도로 주변의 자연 경관은 독일과 체코가 거의 같아 보였다. 운전하는 가운데서도 가이드 이정주씨는 준비해온 CD를 틀어주었다. 체코의 두 명의 음악가들의 음악이다. 스메타나가 작곡한 교향시 '나의 조국'에 나오는 '몰다우'와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을 틀어주면서 체코 역사를 얘기해주었다.

원래 이 나라는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지배에서 벗어나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로 독립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1939년에는 나치 독일에 불법 점령을 당했다. 1945년 전쟁이 끝난 후에는 소련의 위성국이 되어 공산국가가 되고 말았다. 1968년에는 뉘체크의 영도 하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억압하기 위해 소련과 바르샤바연합군은 2000대의 탱크를 앞세워 무력침공을 하였고 프라하에서 많은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 때의 사건을 '프라하의 봄'이라 부른다.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1989년 시민혁명(Velvet Revolution)을 통해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자유 민주국가로 전환했다. 1993년에 체코 슬로바키아 연방을 해체하여 슬로바키아와 분리하고 체코 공화국(Czech Republic)으로 재출발하게 되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1999년 가입했고, 2007년 EU에 가입했으며 현재는 EU의 장국이 되었다. 지난 4월 5일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를 방문해서 미사일 방어 기지 구축에 관해 논의하였고 시민들 앞에서 비핵화를 주제로 연설을 하고 간 일이 있다. 연설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북한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해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더 놀라게 했는데 그로 인

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더욱더 현실감 있고 설득력 있는 연설이 되었다는 논평도 나온바 있다. 한국기업의 체코 진출이 활발해진 것도 놀라운 사실이다. 현대 자동차는 이곳 현지에 연평균 30만대 생산규모의 공장을 지어 Made In Czech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었다. 삼성, LG전자도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한항공은 프라하-인천 간의 주 4회의 직항노선을 취항하고 있으며 체코에 찾아오는 한국인 관광객은 연 7~8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구시청 광장을 압도하고 있는
틴교회(Church of Our Lady of Týn)>

1000년의 역사를 가진 프라하, 알프스 북쪽에 있는 로마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100탑의 도시란 별명도 가진 프라하에 들어선 것은 오전 11시 경이었다. 도시 중앙을 흐르는 블타바강(Vltava: Moldau강으로도 불림)에 있는, 중앙 유럽에서는 가장 오래된 까를 다리(Charles Bridge)에서 관광을 시작했다. 이 다리는 1357년에 세워진 돌로 만들어진 폭 10m 길이 약 500m의 보행자 전용 다리다. 다리 양쪽에는 고딕식 건물인 탑이 있고 좌우 난간에는 성인들의 동상이 진열되어 있다. 650년 전에 돌만을 이용하여 이렇게 큰 다리를 지은 것은 감탄할 만하다. 다리 위에는 관광객으로 붐빌 뿐만 아니라 거리의 악사들의 연주를 하기도 하고, 화가들이 자리 잡고 앉아서 관광객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하고, 기념품을 파는 노점상도 있고 해서 정말 붐비는 다리였다.



<구 시청 광장에서 있는 얀 후스의 동상>

프라하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구시가지로 걸어갔다. 구시청사 광장 근처는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건물로 차 있었다. 뾰족탑이 인상적인 틴 교회(Church of Our Lady of Týn)가 앞에 있고 광장에는 신학자요

종교 개혁가였던 얀 후스(Jan Hus)의 동상이 서 있다. 얀 후스는 성서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교황과 교회지도자들의 부패를 비판하다가 화형에 처형당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가 사형장에서 마지막 말하길, '100년 뒤에는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보내어 종교 개혁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초로 볼 수 있는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에 내걸은 것이 후스가 죽은 지 102년 후의 일이다. 후스가 처형된 후에 그의 개혁정신을 따르는 체코의 후스주의자들이 일어나서 대항했지만 합스부르크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참패당하고, 27명의 지도자는 목이 베여 처형당했는데 그 처형장소가 구시청 건물 동쪽 마당이었다. 마당에 박혀있는 27개의 십자가 돌판 무늬가 처형된 자리다.



<14세기에 세워진 구 청사 건물에 있는 천문시계. 타종시에는 열두 사도 인형이 시계위의 두 창으로 모습을 보인다>

구시청사광장에서 관광객에게 제일 인기 있는 것은 구청사 건물 남쪽 벽에 걸려 있는 천문 시계(Astronomical Clock)인 것 같다. 1410년에 만들어진 이 시계는 시간뿐만 아니라 해와 달의 위치까지 표시해주는 시계여서 천문시계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매시 정각에 타종할 때는 시계 위의 두개의 창이



<시계가 타종할 때가 가까워지면 열두 사도를 보려고 시계 밑에 관광객이 모여든다. 타종이 시작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다. 관중 속에는 알버키에서 온 한국인 세 사람도 들어 있다>

이곳에서 일행은 차를 타고 신시가지로 이동했다.

‘프라하의 봄’(Prague Spring)의 현장을 보러 바츨라프 광장으로 갔다. 국립 박물관에서 내려 보는 이곳의 광장은 양쪽에 일방통행 도로를 두고 길게 뻗은 공원 같은 광장인데, 1968년 이곳에서 소련 탱크 앞에서 항의 데모를 하다가 많은 젊은 학생들의 희생이 있었던 곳이다. 1989년 결국은 평화적인 벨벳 혁명으로 민주화가 되었지만 소련의 간섭 때문에 체코 이 나라는 21년이란 공산주의의 옥살이를 한 뒤에야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얻게 된 것이다.



<바츨라프 광장. 뒤에 보이는 건물은 국립박물관. 1968년 '프라하의 봄' 사건으로 침입한 소련군 탱크 앞에서 항의 데모가 일어난 곳이다.>

다시 차를 타고 프라하 시를 내려 볼 수 있는 높은 지대에 자리 잡은 프라하 성으로 이동했다. 성(城)은 길이가 570미터, 폭이 대략 130미터나 되는 규모여서 성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작은 도시 같은 기분이 든다. 이 성에는 옛날 체코의 왕,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거처하였고, 지금은 체코 대통령 관저도 이 안에 있다. 그런 까닭에 성문에는 의장대 군인이 초소를 지키고 있다. 매 시간 마다의 보초 교대식이 불만하다. 대통령 관저가 이렇게

관광객이 들끓는 성안에 있고 일반인이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오는데도, 감시하는 것도 아닌 마네킹처럼 똑바로 앞만 보고 있는 군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가이드는 우리 일



<프라하성 입구. 정문에 보초가 서 있는 것은 대통령 관저가 성 안에 있기 때문이다>

행을 보고 보초 옆에 가까이 서서 사진을 찍어보라고 권했다. 일행 중 여인 한분이 대담하게 보초선 군인 옆에 팔짱이라도 끼고 싶을 듯 가까이 서서 사진을 찍으려 하자 보초선 군인은 눈하나 깜짝 안하면서 살며시 오른손에 쥐고 있던 총을 약간 잡아 올리더니 총으로 바닥을 탕 치는 것이었다. 가까이 가려던 여인은

개머리판이 바닥 치는 ‘탕!’ 소리에 기겁을 했지만 멋진 사진을 찍는 것에는 성공했다. 가이드는 빙긋이 웃으면서 말하길 “저 나무판을 보세요. 총의 개머리판으로 바닥 나무판이 얼마나 얻어 맞았는지를 보세요” 나무판의 개머리가 닿는 자리는 상처로 흠뻑 파진 게 보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버릇없는 관광객에게 경고 신호 주느라고 총 개머리를 들었다 내려치는 때문이다. 이를 보면서 참 평화로운 나라로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 다른 나라라면 대통령 관저의 보조 옆에 가까이 가서 감히 사진 찍겠다는 생각조차 못할텐데...



<블타바 강가에서 바라보는 프라하 성.
성 안에 있는 성 비투스(St. Vitus) 대성당이 보인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관저 건물을 통과하니 성을 압도하는 듯한 높고 큰 교회건물이 나타난다. 프라하에서 제일 큰 성 비토 교회(Cathedral of St. Vitus)다. 안에 들어가서 놀라게 되는 것은 색 유리창(Stained Glass Window)의 아름다움 때문이다. 이태리, 프랑스에서도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유리창의 미술전시관이였다. 제일 큰 유리창의 색 유리창은 27,000개의 색유리들로 만들어졌다고 하니 입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성 내부를 둘러보면서 황금 소로(Golden Lane)로 갔다. 체코가 낳은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가 집필하면서 거처로 삼았던 집도 보았다. 협소한 작은 집이었다. 이런 작은 공간에서 위대한 독일문학 작품들을 써 낸 것이었다. 그는 체코어에도 능통했지만, 그의 문학작품은 거의 다 독일어로 썼다.

성을 떠나 한식 식당으로 갔다. 김치 찌개가 저녁메뉴였다. 대여섯 시간을 걸었으니 지칠 대로 지쳤으나 김치 찌개로 피로가 모두 달아나 버리는 듯 했다. 체코에서 한국식당을 경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개척정신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에게 감사의 말을 한두 마디 남기고 나왔다.



>event< KIMBOB Sunday

September 6, 2009

5pm -8pm

AT

the PEACE AND justice CENTER
202 Harvard SE



Serving Vegetarian Korean Food

*kimbob(김밥)

rice and veggies

with seaweed

*doenjang guk(된장국)

fermented soybean paste soup with veggies

*kimchi(김치)

fermented spicy cabbage side dish

Hangul Lessons:

Korean speaking, writing, and singing.

Advance Tickets are \$7.00

Ages 5 - 17 are \$3.00 each

Kids Under 5, Free

Available at Peace and Justice Center
or to reserve tickets:

Send personal check to
313 15th St. NW Albuquerque, NM 87104

Phone: 505-242-4934

(Peter and Vivi)

Email:

kimbobsundaywithpeterandvivi@gmail.com

Blog:

<http://peterandvivi.blogspot.com/>



앨버커키, 그 광야속의 훈련

최 건 영 권사

처음 앨버커키로 직장이 돼서 차로 오는 도중에 아내를 울었다. 지평선이 보이는 오클라호마와 텍사스의 푸른 초장이 어느덧 끝나가면서 돌과 누런 황야가 시작되는 뉴멕시코로 들어섰는데 이런 곳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뭔지 모를 막막한 두려움 같은 것에 아내는 운 것이다. 그러나 앨버커키를 떠난 지금은 그곳을 생각하면서 운다. 5년 동안 있으면서 나누었던 사랑, 우리가 받아야했던 광야속의 훈련을 잘 마치도록 여러 모양으로 격려를 주셨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아이들은 지금도 앨버커키로 다시 가자고 성화 아닌 성화다.

우선 Burrito애기부터 해야겠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간 금식하신 후 받으신 첫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드는 시험이었다.(마4:3) 아마 내게 돌을 Burrito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쉽게 그런 시험에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맛이 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맛있다고 생각되었던 것은 아니다. 내 처음 기억으로는 토요일 새벽기도를 마치고 UNM 앞에 있는 Burrito 전문점인 Frontier Restaurant에 간 것이다. 그 날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UNM 앞에 있는 Frontier Restaurant 으로 갔다. 식당이 꽤나 넓다.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많다. 어느 것을 시켜야 좋을지를 몰라서 김권사님 좋은 것으로 시켜달라고 하였다. 맛있게 먹었는데 이름을 잘 모른다. 어쨌든 매우 맛있는 게 맛있었다. (2001년 6월 16일 토요일)

지금 같으면 Burrito 먹은 소감을 장황하게 썼을 텐데 딱 한 줄이다. 그것도 이름을 모르고 먹은 것이다. 그 이후로 Frontier Restaurant에는 자주 간 것 같다. 주로 토요 새벽기도가 끝나고 부담 없이 들르는 곳이었다. 매월 초 토요새벽기도는 속회별로 주회를 해서 하였는데 그 속회에서 아침까지 부담하였다. 그러니까 최소한 매달 한번은 맛있는 burrito를 먹은 것이다. 같이 식탁에 앉은 것만 해도 축복 그 자체가 아닐까? 새벽기도를 마치고 왔으니 나누는 대화가 거칠다면 이상하지 않겠나. 아름다운 말, 격려의 시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으리라 믿는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훈련을 얘기한다면 Sandia Mountain을 빼놓을 수가 없다. Sandia가 spanish로 수박이라지? 그렇게 수박에 줄 간 것 같이 산을 오르는 trail이 곳곳에 많이 있다. 산을 오르는 것은 New Orleans에서 Hurricane Katrina를 맞고 얼마간 다시 Albuquerque에 머물 때였다. 다시 New Orleans로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채용할 회사는 없었다. 아내와 거의 매일 산을 올랐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3번째 시험 받으셨음직한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산의 초입에서도 쉽게 앨버커키를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세상이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4:10)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찌렁찌렁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하였다. 그렇게 맑은 공기와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호연지기를 기르고, 성령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던 곳, 바로 그곳이 앨버커키였다.

엿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즈음에 한국의 장인 어른께서 소천하셨다. 나중에 아내의 얘기로는 산에 오르면 하늘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좋았고 그러면 아버지에게 좀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한다. 그렇게 우리는 아침마다 산을 올랐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로다". (시121:1~2) 시인 김현승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들의 마음이야 늘 그렇겠지만 아마 이즈음이 내게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었지 않나 싶다.

훈련의 막바지에 상징적인 일도 있었다. 산을 오르는 중간쯤에 뱀을 보았던 것이다. 방울뱀 같았는데 꽤 컸다. 아마 일광욕을 하러 길로 나온 것 같은데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아내와 내가 주춤하였다. 주춤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장면이야 일상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계신 것 같았다. 아내와 내가 거리를 두고 뱀을 지나가던 길을 계속 갔다. 내려올 때는 뱀이 있던 자리가 말끔하게 깨끗해져 있었다.

앨버커키에서의 훈련은 우리가 텐버로 이사 오면서 매듭지어졌다. 이 훈련은 아내와 나의 인생에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가족보다도 더 염려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도 있다. 결단코 하늘나라의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고난의 연속인 삶속에서 앨버커키에서의 훈련은 그러한 고난을 이겨낼 힘이 될 것이다.



살롱!
안녕하세요. 국정현 권사입니다.
어느새 귀국을 한 지가 일주일이 되어갑니다.
시차적응뿐만 아니라
집정리와 아이들 학교문제, 회사 일을 처리하느라
조금은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소식이 늦어 죄송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귀국하여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것 저것 바쁜 일로 정신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차츰 자리가 잡혀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 지면서
앨버커키의 많은 정든 사람들의 얼굴과
눈에 익은 모습들이 하나 둘 떠오릅니다.

가끔은 차라리 가슴에 간직한 모습들을
잊었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쉽게 가서 만날 수 있다면,
쉽게 가서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자주 생각이 나도 마음이 편안할 텐데
그리 쉽게 가기 어렵다는 생각 속에는
그리움이 남지 않도록 차라리 잊고 사는 것도....
그렇지만 억지로 잊을 수도 없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각을 주심을 감사하며
시간이 흐르면 그리움보다는
되새겨 즐거움으로 남는 추억이 되리라 믿으며
위안을 삼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정든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이 떠오르고
모임을 갖고, 초대해 주신 집들의 모습들과
오고 가던 길가의 풍경들,
특히 각양각색으로 변화하는
샌디아 산의 모습이 뚜렷이 떠오릅니다.
우리 가족들의 삶에 잊을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날 수는 없다 해도
다시 만날 기회가 주어지리라 믿으며,
그나마 문명의 이기 속에 자주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을
빌어 소식을 전하고,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 아래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어지시고,
가족 내에 건강과 사랑이 충만히 깃들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국정현 권사 올림

어느 날
해와 달이 만났다.
해가 달을 바라보며
“나뭇잎은 초록색이야” 하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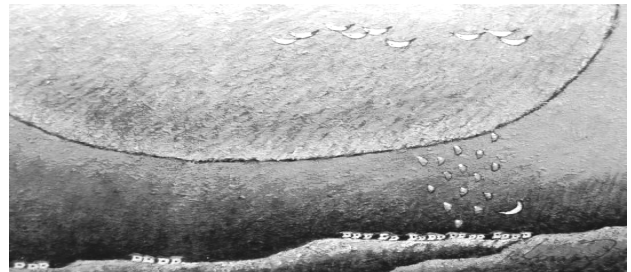
그러자 달이
나뭇잎은 은빛이라고 우겼다.

이번엔 달이 먼저 말했다.
“사람들은 늘 잠만 잔다.”

그러자 해가 달에게
잘못 알고 있다며 대답했다.
“아니야, 사람들은 언제나 바쁘게 움직인다구.”

해의 말에 달이 의문을 가졌다.
“그러면 왜 땅은 늘 그렇게 조용한 거지?”

그랬더니 해가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누가 그러니? 땅은 언제나 시끄럽기만 한데...”



어느새
해와 달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때 바람이 나타났다.
바람은 둘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허허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은
쓸데없는 다툼을 하고 있구나.”

낮에는 해의 말대로
나뭇잎은 초록색이란단다.
사람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땅도 시끄럽지.
그러나 달이 뜬 밤에는
모든 것이 변해 땅이 고요해지고,
사람들은 잠을 잔단다.
나뭇잎은 달빛을 받아 은빛이 되지.
늘 우린 이렇게 자기가 보는 것만을
진실이라고 우길 때가 많단다.

암을 이겨낸 사람들

지나온 날을 뒤돌아보고 싶지는 않지만 살아온 세월 중에 한 단면이라 적어봅니다. 몸과 마음이 아플 때는 온 세상이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고 절망의 늪에 빠져버려서 괴로운 나날들이 있지만 그래도 살수 있다는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금 돌아봅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병원 진료실 앞에서 만난 남편의 백지장같이 하얗게 보이고 검뎀은 얼굴, 가슴 한편으로 불길한 생각에 올 것이 왔구나 '오, 하나님! 맙소사'가 저절로 나오면서 모든 생각이 밀물처럼 다가오더니 이런 일이 다 남의 일처럼 돌렸던 것이 나의 일, 내 가족의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은 잠도 안 오고, 막내딸 결혼식장에서 혼자 서 있을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해지고 암이라면 당장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전이는 안 된 상태라 빨리 병원에 간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고,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된 일이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기나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일찍부터 술, 담배도 하지 않고 몸을 만들었으면 되지 않았나 원망도 들고, 그러나 '옆질러진 물, 원망하면 무얼 하겠나' 싶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빠 앞에서 내색을 못하고 아빠의 축 늘어진 어깨만 주물렀습니다. 병명을 알고 난 후에 집에 있는 시간들이 더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대장암과만 진료를 받고 있어서 2000년 12월 18일 '국립 암 센터' 박재갑 원장님한테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의 남편의 증세는 어느 날 여름부터 자꾸 변비증세가 있고 점점 체중이 줄고 오한이 나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본인이 힘이 드니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진전이 돼있는 상태라 많이 당황하고 금방 어떻게 되는 것 같이 생각해서인지, 그 순간에는 마음의 준비로 유서도 써놔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우연히 서랍을 열어보니..... 마음이 찡하게 편지를 써놓아서 한동안 힘들어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동안 큰 병 없이 건강했던 것이 변비 때문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안 한 것이 큰 오산이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설사증세가 계속되어도 나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서운 현실이지만, 현실을 마주쳐야 했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웃는 얼굴로 쳐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술 받으려고 입원하던 날은 처음 병원 생활이라 을씨년스럽고 남편 우울한 기분을 달래려고 그날 구멍 가게에서 화투를 사가지고 와서 당신 힘없을 때 내가 돈내기해서 따라갔다고 하며 웃기도 하고 멀리 여행 온 기분으로(분당 집- 일산 병원) 첫날을 보냈습니다. 다음날부터 금식과 함께 힘든 검사가 시작되고 이를 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시간이 길어져서 마음을 조이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침대에 누워 나옵니다. 남편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다는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전 차디찬 남편의 몸을 담요로 덮어주고 뜨거운 물수건으로 번갈아 문질러주고 눈물

이 고여 있는 남편의 눈을 닦아주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여보'하고 찾을 때는 마음이 찡해지고 남편을 위해서 앞으로 더 잘해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을 출산하고 난 기쁨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전쟁 아닌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술 다음날부터 남편은 시간만 있으면 열심히 링거병을 끌면서 복도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한번은 복도 한편에서 push-up 을 하다가 수술 봉합자국이 조금 늘어나는 사고도 생기고, 본인이 살기 위한 자기와의 투쟁과 의지를 옆의 호실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어주었습니다. 저의 보호자 침대도 많이 좁아서 몸이 괴로웠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 해 유난히 추웠던 겨울 눈이 많이 와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남들은 즐거워 보이고 흥청거리는 것 같고 병원 창 밖을 내다보며 주차장에 서있는 우리 차만이 (개원을 안 해서 몇 대뿐이었다) 눈을 수북이 뒤집어쓰고, 남편의 병상을 지켜주는 파수꾼처럼 기다리는 제 모습에 저차를 타고 완쾌해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며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수술을 해 주시면 그 다음의 중요한 과정은 퇴원 후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밥맛도 없는 남편한테 식사문제가 걱정이 앞서고 주위에서 보호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삼이다 영양탕이 좋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다른 병도 아니고 보양식으로 먹는 것 보다는 싱겁게 만들면서 우리 농산물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야채주스(홍무, 무, 우엉, 표고버섯, 무, 씨레기를 삶은 물)와 마늘은 찌서 꿀에 재워서 먹고, 골고루 음식을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편하게 먹고, 많이 웃으면서(목젖이 흔들릴 정도) 지내고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고 살자고 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수술 후부터 식습관뿐만 아니라 생활습관도 바뀌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강인함이 없으면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 퇴원해서 다음날부터 운동을 하러 집 앞 공원을 갔습니다. 눈이 내리던 추운 겨울이어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걸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먼발치서 보면서, 젊었을 때는 한 시절 회사에서 잘 나가던 남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몸과 마음이 지쳐서 처진 두 어깨를 보면서 눈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했고, 저 또한 입을 악물어야 했습니다. 퇴원 후부터 한달 후에 항암치료가 시작되어서 항암주사약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입안도 헐고 손바닥도 갈라지고 고통으로 음식도 거부할 때면, 옆에서 지켜보는 이의 마음이 괴로웠고, 힘들 때는 남편이라기보다는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달래면서 식사시간이나 화장실 문제에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도 날 수 있지만, 그 때는 그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가령, 갑자기 급해서 바지에 묻힐 때나 밖에서 화장실을 갑자기 찾아 이리저리 뛰어가는 모습이나, 현관 자리에 실수할 때도, 변을 치울 때도 돈이 많이 들어올 거라며 큰소

리로 웃기도 했지만, 사람이 사는 동안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주위가 다 우울해지고 편치 않겠지만,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습니까? 그럴 때는 서로 인내와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참고 이겨나가야만 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힘이죠.

6개월 동안 여섯 번의 항암치료를 끝내면서 몸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그 후부터는 3개월에 한번씩 이제는 6개월에 한번씩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이번 4월에 병원가면서 남편이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고 하지 않을까 하고 묻길래, 지금 상태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마음을 놓지 말고 더 조심해서 지내기를 의사선생님은 바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세월은 유수 같다고 하듯이 일년에 두 번 검사를 받으러 다니다 보니 계절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김없이 찾아와서 온 세상이 붉게 물들은 꽃밭을 산책하며 함께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몽클해져서 감사한 마음에 울컥 눈물이 납니다.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가고 올해 12월이면 만 6년이 되어갑니다. 지금은 주위에서 인간 승리라고 불러주고 남편이 웃으면서라도 고맙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내외는 남들이 들으면 지저분한 얘기도 아무렇지도 않게, 방귀 냄새도 향수냄새로 구수하다고 느끼며, 아이들이 아빠한테 "안녕하셔요?"가 아니고 "오늘 변 잘 보셨어요?"하며 아빠 방귀소리도 오토바이 시동 소리 같다고 농담 반 진담 반 하며 지냅니다. 아이들도 힘든 시간을 옆에서 지켜보며 아빠의 소중함을 느끼고 지금은 남편의 성격도 많이 밝아져서 예전보다 더 가까이 아이들과 잘 어울리며 지냅니다. 남편 병명이 대장 쪽이다 보니 옛 어른들이 잘 먹고 똥 잘 싸라고 하신 말씀이 명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부러운 것은 물질적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저의 남편에게 한 점의 썬표를 갖다 준 그 소중한 일깨움을 잊지 않으며 다시금 더 건강하고 오래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도 사랑하는 남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수기 제공: 원지원

{생활상식}

소금 이용의 20가지 상식

1. 달걀을 삶을 때 삶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달걀이 터지지 않는다.
2. 옥수수 등을 삶을 때 삶는 물에 설탕을 넣고 소금을 조금 넣으면 단맛이 강해진다.

3. 커피를 마실 때 소금을 조금 넣으면 향도 좋아지고 정력증진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4. 가지를 볶을 때 진한 소금물에 담갔다가 볶으면 가지가 기름을 많이 먹지 않는다.
5. 보리차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향기가 좋아진다.
6. 옷에 피가 묻었을 때 소금물에 담가 핏물이 배어 나온 후 비벼 뺀다.
7. 감물이 옷에 묻었을 때 소금물에 담갔다가 뻘 후 식초 탄 물에 빨아 세탁하면 감물이 빠진다.
8. 바닷조개는 소금물에 담가 두면 흠이나 모래를 토해 낸다.
9. 추운 겨울날 빨래를 할 때 행궁 물에 소금을 넣어 행구어내면 밖에 널어도 얼지 않는다.
10. 토마토나 삶은 감자 등은 소금에 찍어 먹으면 달고 맛이 좋다.
11. 기름 묻은 프라이팬이 뜨거울 때 소금을 뿌려 휴지로 닦아내면 깨끗이 닦인다.
12. 시금치 등 야채를 삶을 때 소금을 조금 넣으면 야채의 색이 선명해 진다.
13. 개미가 방에 많으면 장롱 밑이나 구석에 소금을 뿌려 놓으면 개미가 없어진다.
14. 버섯요리 할 때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버섯을 튀겨내면 색깔이 살아나고 독성이 없어진다.
15. 두릅을 요리할 때는 두릅의 밑 부분을 깎아 내고 바닥을 십자로 칼집 낸 후 소금을 넣으면 독성이 없어진다.
16. 아기를 목욕시킬 때 목욕물에 소금을 넣으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
17. 클렌징을 할 때 잘 지워지지 않으면 크림에 분말 소금을 조금 넣고 딥 클렌징을 하면 화장이 깨끗이 지워진다.
18. 담수어처럼 흐트러지기 쉬운 생선을 구울 때 소금물에 30분정도 담갔다가 구우면 잘 흐트러지지 않는다.
19. 껍질을 벗긴 과일을 소금물에 담갔다가 꺼내면 색이 변하지 않는다.
20. 목감기로 목이 부어 따가울 때는 따뜻한 소금물 양치가 특효(1-2시간 간격으로 자주 해주도록 한다),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꿀을 한 스푼 삼키거나, 파인애플주스를 자주마시면 도움이 된다.

80대 20 법칙이란?

80대 20 법칙의 발견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 : 1848~1923)가 처음 주장한 것으로 19세기 영국의 부와 소득의 유형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부의 불균형현상으로 전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데 어떤 시대, 어떤 나라를 분석해 봐도 이러한 부의 불균형 비율이 유사하게 존재한다. 다른 예로서,
- 20%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위반의 80% 정도를 차지하며

- 20%의 범죄자가 80%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 20%의 조직원이 그 조직의 80%의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 전체 상품 중 20%의 상품이 80%의 매출액을 차지할 뿐 아니라
- 전체 고객의 20%가 또한 전체 매출액의 80%를 기여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보면 한국의 4대그룹이 나라 전체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20%의 국민이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보면 운전자의 20%가 전체 교통위반의 80% 정도를 차지하며 20%의 범죄자가 80%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집에 있는 옷 중에서 20%정도의 옷을 옷 입는 시간의 80%정도 입고 다니며, 노래를 부를 때도 18번이라 하여 좋아서 부르는 노래는 같은 곡목을 반복해서 부르고 있다. 노래 부르는 기회 10번 중 8번은 십중팔구 같은 곡을 부르고 있지 않은가.

조직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다. 즉, 20%의 조직원이 80%의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상품 중 20%의 상품이 80%의 매출액을 차지할 뿐 아니라 전체 고객의 20%가 또한 전체 매출액의 80%를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80대 20 법칙의 발견은 파레토 그래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 : 1848~1923)가 처음 발견한 것이다. 파레토가 19세기 영국의 부와 소득의 유형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부의 불균형현상은 다음과 같았다. 전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10%의 인구가 65%의 부를 그리고 5%의 인구가 50%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파레토가 놀란 사실은 어떤 시대 어떤 나라를 분석해 봐도 이러한 부의 불균형 패턴이 유사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그 후 하버드 대학의 조지 집스 박사는 1949년에 사람, 물건, 시간, 기술 등 생산적인 자원은 스스로 노력을 최소화하도록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20~30%의 자원이 70~80%의 결과를 이루어낸다는 최소 노력의 법칙인 집프의 법칙을 발표하였다.

또한 세계 최초의 품질 컨설턴트로 인정되는 미국 엔지니어 조셉 주란은 1951년에 출간한 품질관리 핸드북에서 80대 20법칙의 다양한 예를 소개하였는데 특히 품질저하의 분포에도 적용함을 강조하였다. 불량 원인 중 20%의 요인이 80%의 불량품을 만들기 때문에 20%의 불량요인을 없애는데 집중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IT 산업에도 적용된 80대 20법칙

이러한 80대 20법칙을 활용하여 성공한 최초의 기업으로 IBM을 꼽을 수 있다. 제3세대 컴퓨터시대의 기원인 System/360의 OS는 당시 컴퓨터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20%의 운영 코드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었다.

RISC시스템 역시 같은 맥락에서 80대 20법칙을 적

용하여 만든 컴퓨터이고, PC에서 사용되는 Window OS도 이러한 80대 20법칙을 사용하여 값은 더욱 싸지고 사용하기는 더 쉬운 컴퓨터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사용자가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고가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고,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컴포넌트로 모듈화 되어 가고 있다. 전체 프로그램 사용시간 중 80% 시간을 쓰는 20%만의 기능들을 단순화하고 자동화하여 쓰기 쉽도록 만드는데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은 80%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자료의 홍수 속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도 핵심이 되는 20%의 고객, 20%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80대 20법칙의 접근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80대 20의 법칙은 적은 종류의 제품을 소수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조직이 많은 수익을 낸다는 단순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조직의 업무흐름도 단순화시켜야 됨은 물론 개인의 목표도 단순화되어야 한다.

출처 : [3월 14일 1시 59분에 태어난 파이], 여인감, 문원출판

어떤 개구리

칠레의 산속 늪지에는 ‘리노데르미르’ 라는 특이한 작은 개구리가 산다.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이 개구리의 암컷은 젤리 같은 물질에 쑤인 알을 낳는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수컷이 알을 모두 삼켜버린다. 먹이처럼 완전히 삼키는 것이 아니라 식도 부근에 있는 자신의 소리 주머니에 그 알들을 소중히 간직한다.

그러곤 그 알들이 성숙할 때까지 자신을 온전히 희생한다.

수컷 개구리는 알들이 완전히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결코 입을 벌리지 않는다.

자신의 존재 이유이며 유일한 쾌락인 우는 것을 포기한다.

소리주머니에 있는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 먹는 것까지도 포기한다.

어느 날 알들이 완전히 성장했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개구리는 자신의 입을 벌려 마치 긴 이품을 하듯 새끼 올챙이를 입에서 내보낸다.

사랑의 결실을 맺고 싶다면 끝까지 사랑이기로 결단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견뎌야 한다.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들은 그런 사랑 속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실만한 물가’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lbuquerque (505-275-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lbuquerque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lbuquerque (505-296-8568)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lbuquerque (505-298-8989)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lbuquerque (505-899-009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Albuquerqu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338-2424)
 Midori Susui: 6205-E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830-2507)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lbuquerque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5-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lbuquerque (505-833-5755)

Yen Ching: 4410 Wyoming NE, Albuquerque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505-271-8700)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내추럴: 2302 Morris NE, Albuquerque (505-453-5461)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란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lbuquerque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87103 (505-242-8542)

모텔 Hotel/Motel

Ramada Inn: 2015 Menaul Blvd NE, Albuquerque (505-881-3210)

부동산 Realtors

그레이스킴 Grace Kim: Kerzee Real Estate (505-315-5123)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최귀분 Gui B. Bonaguidi: Vaughn Company (505-249-8686)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Albuquerqu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lbuquerque (505-883-9009)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lbuquerque (505-884-2202)
 Central Outlet: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55-4345)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lbuquerque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경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87110 (505-271-8031)

갈릴리 장로교회: 목사님 요청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뉴멕시코 성결교회: P.O.Box 94855, Albuquerque, NM 97199 (408-334-7227)

샌디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lbuquerque (505-823-1678)

알버커키 장로교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505-331-9584)

루넬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505-903-2297)

주택용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200 Lomas Blvd, NW 11flow 87102 (Office 505-765-5098) (cell 505-379-1089)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lbuquerque (505-271-2633)

태권도 TaeKwonDo

US Taekwondo Center: 5850 Eubank NE B35, ABQ, NM 87111 (505-296-0336)

한의학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710-7504)

Dr. Park: 5800 Forest Hills Dr NE, Albuquerque (505-514-2900)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lbuquerque (505- 345-6644)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Osaka Restaurant: 1463 Rio Rancho Blvd, Rio Rancho (505-892-777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io Rancho (505-994-8855)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내후탈: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

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환세희씨 남편 Damon Duran)

갤럽 Gallup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5396)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Five Brother's Chinese:
1001 E. University Ave., C1, Las Cruces (575-496-2445)

공인회계사 CPA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132 S. Solano Dr, Las Cruces (575-635-1624)

화밍톤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벼룩 시장 FLEA MARKET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광고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사고/팔고

정보마당

렌트/부동산

구인/구직

도와주세요



알버커키 김수영 화가(www.geocities.com/hongsooyoungstudio)와 박영숙 화가(www.youngsookpark.com)의 작품들입니다.

김영신 부동산

"주택 구입 절호의 기회"
"최저 이자율에 집값도 급락"
"First Time Home Buyer", \$8000 Tax Credit!

*** Plus, Loan Modification/융자 조정 프로그램**
경제 침체로 인해 직장을 잃으셨거나,
사업이 부진해서 주택 페이먼트
어려우신 분 도와드립니다. 페이먼트
삭감 또는 이자율 재조정 가능합니다.

*** Also, "상업용 건물 투자/새로운 사업체 구매"**



Call me for All-In-One Service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505) 293-5500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www.kaanm.com

To:



회장: 김두남(Kim Young)
(505) 270-1984
kiminnewmex@msn.com